

전남 무상교육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학기부터 전체 고등학생들에 수업료·학교운영비 제공 농어촌 학생 교통편 제공·사립유치원 급식비도 지원

2학기부터 전남지역 교육현장에 무상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전 고교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교통편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 급식비도 지원되는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전남지역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한 것에 이어 2학기 고 2·3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국 최초

로 오는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당장 2학기부터 전남지역 전체 고교생들이 수업료 전액과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도의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121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택시 운영도 확대된다.

지난 5월부터 전남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에듀택시는 9월 개학과 함께 전남 2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4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를 분석해 최근 '에듀택시 확대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에듀택시는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중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1개 시·군 131개 학교 709명이 에듀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투입되는 에듀택시는 총 276대로, 7억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억3200만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9월부터 전남지역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전액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93개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 2822명으로, 원아 1명의 한 끼당 22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으며, 올해 1학기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교 신입생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다자녀가정의 학생교복비 지원 등 무상교육을 펼치고 있다.

장석웅 도교육감은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아이도 소외되는 양도 없도록 보편적인 복지를 이뤄가겠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153개 학교 168건 친일잔재 29일 공개한다

전남교육청, 중간보고회 친일·항일 주제 음악회도

전남지역 학교 곳곳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친일잔재가 공개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유희터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친일잔재가 확인된 전남지역 117개 학교 관계자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교직원, 시민단체 회원,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 교내 친일잔재 153개교 168건에 대

한 현황 공개에 이어 향후 친일잔재 청산 계획이 발표된다.

각급 학교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친일파 작곡 교가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이 공개되고, 친일·항일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회도 열린다.

도교육청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학교수,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으로 TF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53개교에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 일제 양식 식물, 일제식 용어 생활규정 등 168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지적직 공무원·국토정보공사 합격생 다수 배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적직 공채 시험에 잇따라 합격생을 배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국토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결실을 맺고 있다.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학과장 장우진)는 올 상반기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채 시험에서 6명이 합격했다.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는 1977년 학과가 개설된 이후 지적 관련 전문가를 키워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졸업생으로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 기술인으로 근무하는 인원만 500여 명이다. 또 법원산하 등기직, 철도청 지적직, 지하철건설본부 지적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직으로 활약하는 졸업생은 600여 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적 관련 전문가로 능력을 펼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 승무원 체험교육 참가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22명은 최근 이틀간 전공 역량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등에서 '제주 항공 객실승무원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광주대 제공>

전남대학교 2018 후기 학위 수여식

학사 1240명·석사 295명·박사 117명 등 1653명 배출

전남대학교가 26일 오전 교내 민주마루(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240명, 석사 295명, 박사 117명, 명예박사 1명 등 모두 1653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정병석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졸업생 가족친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선나는 학생(경영학부) 등 졸업생 70명에게 성적우수상, 김덕진 학생(영문학과) 등 8명에게 총장명예학생 증서가 수여됐고, 임

선택 학생(컴퓨터공학전공) 등 3명에게 총동창회장상이 주어졌다.

또 패션그룹 최병오 회장에게는 명예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정 총장은 고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까지 모노레일처럼 정해진 인생행로를 지나왔으나 오늘부터는 낯선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며 "거친 별판은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맬 수 있으나 동시에 어디든 지 갈 수 있고, 어떤 세계와도 통할 수 있다"며 격려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신설 해외취업중점학과 'GBC학과' 입학설명회

오늘 오후 6시30분 해오름관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으로 신설된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약칭 GBC)학과 입학설명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GBC학과는 해외취업중점학과로 해외

취업에 필수적인 지식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 커리큘럼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GBC학과는 지난 2016년부터 프랑스어 문헌학과를 기반으로 조선대 외국어대학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집중 수행해 왔다. 저학년 시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관

련 과목들과 영어 심화교육 및 제2외국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고학년이 되면 통상조사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실습, 사업기획 및 조사방법 실무 등 비즈니스와 직결된 과목을 배우게 된다.

이 같은 교육으로 조선대 GBC학과는 지난 3년간 싱가포르에서 11명을 정규직

으로 취업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채용형 인턴으로 보내고 있다.

27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리는 'GBC학과 입학설명회'에서는 커리큘럼과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해외프로그램 등과 아울러 해외취업의 구체적 절차, 대학재학중 해외취업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만학도·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학장 최효상)이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 2017학년도에 신설된 미래사회융합대학은 조선대의 17번째 단과대학으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취업반을 졸업한 재직자들이 대학정규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열린 대학이다.

전형은 크게 만학도전형(전형내)이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정원

외)으로 나뉘며, 만학도전형에서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 3년 이상은 재직자를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 전형(교과 90%, 출석 10%)이며,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없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9월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대학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사이트로 이동,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10억 투자
2분 모십니다!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 풀포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